

터키,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 지속

미국 추가제재에도 의존도 높아 불가피 ... 이란산 수출 90% 차지

미국 상원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가결했지만 터키 정부는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을 지속하겠다고 12월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터키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은 터키와 이란 사이의 금-천연가스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천연가스는 터키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제재 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현재 터키는 수입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국을 다양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란산 가스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는 앞으로도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할 것임을 관련 국가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은 이란과의 에너지, 항만, 해상 운송, 조선, 금속 등 부문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 제재안을 11월3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사실상 터키에서 이란으로 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알리 바바칸 터키 부총리는 “터키는 이란에서 가스를 수입하면서 터키 리라화로 지불하는데 달러화로 교환할 수 없어 이란은 대금만큼의 금괴를 터키에서 수입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10년 안에 유럽의 전력 소비량 순위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는 전력 대부분을 천연가스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이란의 전체 천연가스 수출에서 터키비중은 9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04>